

농장의 폐사율을 최소화 하자



강 화 순 양돈마케팅이사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최근 양돈업계의 최대 현안 문제는 돼지를 죽이지 않고 많이 파는 것이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돼지가 과연 얼마나 폐사되고 있을까?

필자는 이번 호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활용하여 폐사현황을 파악해보고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국내 양돈의 폐사율은 얼마인가?

2004년말 국내 돼지 총 사육두수는 8,908,000두이며, 모돈수는 935,000두이며, 도축두수는 14,620,246두이다.

2003년 정부통계에 의하면 번식돈의 산자수는 연간 20.3두이며, 이유두수(PSY)는 18.3두이다.

이 수치를 2004년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2004년도 총 생산 산자수는 18,980,500두이며, 총 이유두수는 17,110,500두이다. 이유까지 총 폐사두수가 1,870,000두이다(9.85%

폐사). 도축두수가 14,620,246두이므로 산술적으로 이유 후 총 폐사두수가 2,490,254두이다.(이유후 14.5% 폐사)

총 폐사두수를 합하면 4,360,254두로 총 도축두수의 29.8%에 달하는 엄청난 두수이다.

국내 생산돼지의 23%가 폐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말의 모돈수가 975,000두이었으므로 실제 생산시기와 출하시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돼지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돼지의 총 폐사두수는 약 500만두가 됨을 의미한다.

〈표 1〉 양돈 사육통계 및 성적요약

구 분	'03. 12	'04. 12
총사육두수(두)	9,231,000	8,908,000
모돈수(두)	975,000	935,000
도축두수(두)	15,286,616	14,620,246
산자수(모돈당)	20.30	-
이유두수(모돈당)	18.30	-
MSY(두)	15.67	15.63

2004년 국내 돼지 폐사두수는 4,360,254두로 총 도축두수의 29.8%에 달하는 엄청난 두수이다. 국내 생산돼지의 23%가 폐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말의 모돈수가 975,000두이었으므로 실제 생산시기와 출하시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돼지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평균성적이 이러하므로 많은 농가에 서는 이보다 더 높은 폐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농가에서 농장관리와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돼지고기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그러므로 폐사율을 줄이지 않고는 국내 양돈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폐사율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만 국내 양돈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폐사의 대부분은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인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욕심을 없애고 기본적인 사양관리에 충실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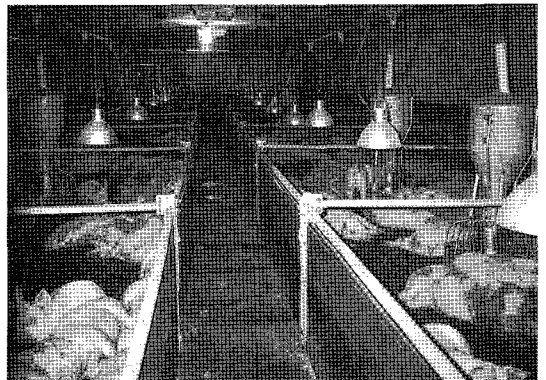
가. 이유 일령을 늘리자

자돈에서의 폐사가 증가되고 있는 이유중의 대표적인 원인이 무리한 조기 이유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농장의 평균 이유일령은 21일 정도로 매우 빠르다.



▲ 이유 후 폐사율이 높은 농장은 빨리 이유 일령을 현재보다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농장은 연속사육이 이루어지고, 울인-울아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모든 회전을 개선, 분만사 시설의 문제와 모든 영양상태 등의 문제 때문에 21일이라는 매우 빠른 조기 이유를 실시하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21일 조기이유를 시킨다 하여 국내의 모든 회전이 개선되고 농장 성

〈표 2〉 2003년 프랑스 농장의 생산성-30두 도전

구 분	평 균	상위 10%
농장의 사육모돈(두)	200	300
복당 생시 산자수(두)	12.5	13
복당 이유두수(두)	10.8	11.7
이유 일령(일)	25	22.3
모돈의 평균산차	5	5.4
년간 모든 두당 이유자돈수(두)	26.6	29.7

(2004. 10. PMWS 세미나, 마덱박사)

적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조기이유로 인하여 이유 후 자돈 폐사율만 증가되어 역으로 농장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양돈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동물복지법 등으로 인하여 28일령 이유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이며 유럽의 농장 성적이 오히려 국내보다 높다.

따라서 이유 후 폐사율이 높은 농장은 빨리 이유 일령을 현재보다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돈사를 리모델링 하자

이유 후 폐사가 많이 나는 농장은 농장의 환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는 사육단계에 맞는 시설과 환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돼지의 사육단계에 맞게 돈사를 리모델링하고 돼지의 환경에 맞는 온도와 환기를 해 주도록 해야 한다.

돈사를 초기자돈사, 자돈사, 육성사, 비육돈사로 구분하여 리모델링하여 돼지의 환경에 맞게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여 폐사율을 감소시킨 사례를 많이 경험하였다.

돈사 시설이 열악하고 시설이 부족한 경우 이유자돈사를 신설하거나 자돈 콘테이너를 설

치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 올인-올아웃과 소독을 철저히 실시 하자

질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농장은 연속사육이 이루어지고, 올인-올아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올인-올아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농장을 관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돈 뿐만 아니라 비육돈에서도 올인-올아웃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돈사를 비우는 것과 함께 신경써야 할 부분이 소독 철저이다. 돈방을 충분히 수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돈방을 건조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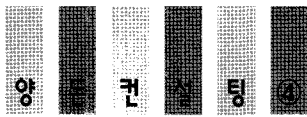
돈방을 비우는 만큼, 질병을 없애고 출하 일령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 환돈방을 운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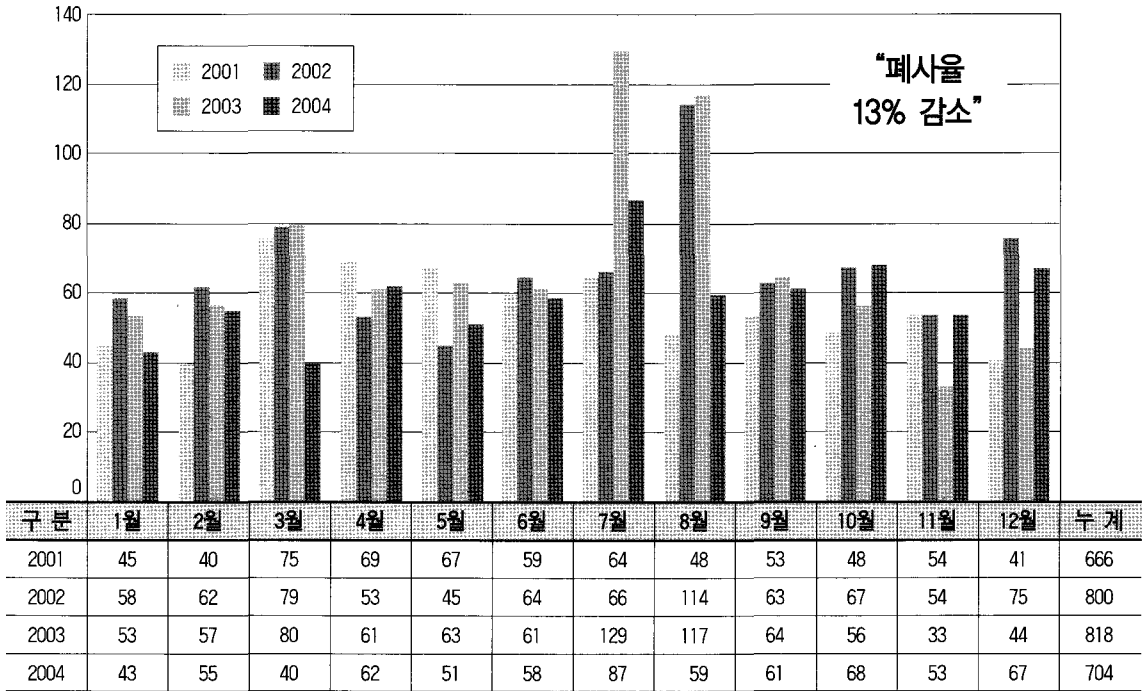
질병에 감염된 돼지는 활동이 위축되며 사료 섭취량이 저하되어 제대로 성장 할 수 없게 돼 계속 위축되어 결국 폐사하게 된다. 따라서 위축돈을 따로 모아서 집중관리하면 시간과 경비를 적게 들고도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폐사율을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돈방 운영이 필수이다.

마. 돼지의 영양을 강화하자

만병의 근원은 영양부실에 의한 면역력 저하이다. 영양을 잘 공급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질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더라도 회복이 빨리 된다.



〈그래프〉 폐사율 감소로 농장 성적 향상사례(전년대비 폐사분석(전체))



현재의 질병만연이 2000년부터 4년간 지속된 불황으로 인한 영양공급 부실이 만들어낸 인재라는 많은 양돈전문가의 의견이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사람도 건강유지를 위해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찾아먹는 것이 이러한 연유이다.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돼지에게 좋은 영양공급과 환경관리 및 사양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양돈농가의 의무이다.

〈그래프〉은 필자가 제시한 프로그램대로 시행하여 지난 1년간 전년도에 비해 폐사율을 13% 줄여 농장성적을 개선 한 사례이다.

이 농장은 3,000두 규모로 2004년 연간 육성율이 90%로 전년대비 폐사율이 전체적으로 13%가 감소하였으며, 연간 MSY가 21.2두이며, 2004년 하반기는 MSY가 24두에 이르고 있다. 국내 평균 돼지 폐사율 평균이 23%를 넘어서는 양돈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돈업계 전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폐사율을 10%대로 내리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돼지가 살아야 농장이 살고 농장이 살아야 한국 양돈업이 산다. **양돈**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